

영암군,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축제

영암군은 오는 10일 영암군봉축위원회(도감사 주지 설도)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불가2682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통평 균수 군의 장, 도·군의원을 비롯한 도감사 주지 설도 스님 및 불제자,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며, 문화예술공연 등의 식전문화행사와 법요식, 제등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군3함대 군악대의 힘찬 연주와 은은한 아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게 될 제등행진은 실내체육관 → 영암의용소방대 → 김승관내과 → 영암군청 → 에이마트 →

내일 영암봉축위원회 주관 실내체육관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주제

실내체육관으로 이동을 하며, 연등을 든 불제자를 비롯한 영암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년 연등문화축제는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란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며, 지혜가 없는 자비는 위선과 자기만족에 그칠 수 있고 자비 없

는 지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등문화축제에 앞서 3일에는 영암읍 터미널 로터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점등식에 이어 연

등문화축제와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월출산 도감사 대웅보전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거행된다.

군 관계자는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줄 자비의 등불이며 풍요와 행복을 비는 자극한 서원이다"라며 "연등문화축제를 통해 무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처럼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퍼져나가 지역민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20돌' 담양대나무축제 국내외 47만명 인산인해

안전·청결·친절 축제에 극찬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내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담양대나무축제가 7일 폐막식을 끝으로 8일 동안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담양군은 7일 "지역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47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 기간 담양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축제의 품격을 드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비람과 미세먼지 등 고르지 못한 기상 여건에도 첫날부터 죽녹원과 관방제림, 도림대 일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줬다.

스무번째로 상년을 맞이한 만큼 안전과 청결, 친절에 힘쓰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원들이 먹거리 안전과 편의시설 운영에 힘을 보태면서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죽녹원, 관방제림, 도림대 일원을 운(運)·수(水)·대(竹)·통(通)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아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 것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하는 계기가 됐다.

이간에는 대나무소망등과 향교 다리 '천년의 용솟음' 조형물, 관방제림의 숲속 별빛 경관 등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연극 공연과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는 축제의 격을 한층 높였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대소쿠리 불고기잡기, 대나무 카누, 대나무 족욕, 대나무 연 만들기 등은 가족, 연인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었다.

유치원과 중학생,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날마다 '죽취리리랑' 음악에 맞춰 선보인 플래시몹과 지역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올해 축제에선 또 미국 린우드 시 니콜라스마스 시장을 비롯한 12개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축제에 동참하고,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숲 속의 외국인 원정대'로 활동해 글로벌 화합의 기회도 마련됐다.

대나무역사문화 퍼레이드와 2018 대나무 문화산업전, 죽순오리 경연대회, 대나무골 청정생태관, 대나무 문화학교 등도 축제기간 내내 눈길을 끌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7일 '달의 마당'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담양천년소망배 승천식, EDM파티(DJ와 댄스)로 대동한 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군 관계자는 "대나무로 꾸며진 무대연출과 홍보부스 구성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결하고 깔끔해진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감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밝혔다.

죽녹원, 관방제림, 도림대 일원을 운(運)·수(水)·대(竹)·통(通)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아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 것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하는 계기가 됐다.

이간에는 대나무소망등과 향교 다리 '천년의 용솟음' 조형물, 관방제림의 숲속 별빛 경관 등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연극 공연과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는 축제의 격을 한층 높였다.

지역공감·미래성장·정문지심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해남군, 효실천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효행문화 확산·어르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남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어버이날 기념 효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효실천 우수기관은 지속적인 효실천 노력으로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효행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수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 최초로 어르신 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58개 전체 마을 경로당에 에어컨과 건강안방자리 보급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들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팥밭보듬지리를 운영,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2013년 시작된 팥밭보듬지리 조성사업은 현재 52개소에 이르러 425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 기원 장수사진 촬영과 장수 어르신 생신 행거 드리기, 홀로사는 어르신 밀반찬 배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세심하고, 촘촘한 노인복지로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해남진도, 완도 3개군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남도광역주모공원 사업도 올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행복이 군민들의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노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효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은 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곡성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준비 박차

곡성군은 지난 4일 곡성군정 소동마루에서 곡성경찰서, 담양소방서, 자율방재단, 곡성군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군 관내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및 토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포항에서 지진 발생 후 전국적으로 높아진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민의 지진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진·화재복합재난을 중점 훈련으로 선정했다.

특히 오는 17일 진행되는 군 대표 실제훈련인 '곡성중앙초등학교 지진·화재복합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원대학교 박기홍 교수, 목원대학교 최재명 교수의 자문을 얻어 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는 군청 협업 부서 담당자들이 각각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재난대응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하는 토론식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에 앞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 청자의 전통을 이어가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제1회 전통가마 불 지피기 행사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제1회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를 개최했다.

고려청자의 전통 방식에 따라 화목가마에 불을 지피 청자를 굽고, 청자의 명품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청자박물관은 소성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동안 박물관 관람객 등 200여명이 소성이 진행 중이던 강진요 2호 가마를 방문해 화목가마 소성 과정을 지켜보고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보고 온 고려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통가마 불지피기에서 청자상감문화문명 등 56점을 소성했다. 청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



지 대략 일주일(5월 9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률이 30% 정도로 완제품 생산율이 낮은 전통가마 작품의 특성상 이번 소성에서는 어떤 명품 청자가 생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열리는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총 3번 계획하고 있다. 다음 행사는 다가오는 제46회 강진청자 축제에 앞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 광주 지역 안내 | | | |
|------------------|------------------|--|--|
| 계림 010-3635-7195 | 백운 010-2943-8374 | | |
| 중앙 010-3365-6200 | 광산 010-5604-6533 | | |
| 학운 010-4166-1810 | 송하 010-8620-1925 | | |
| 광천 010-6612-8599 | 임동 010-2656-4543 | | |
| 금호 010-6636-2775 | 양산 010-2646-3205 | | |
| 상무 010-5359-7406 | 오치 010-7532-3313 | | |
| 풍암 010-6634-5084 | 북구 010-4601-2080 | | |
| 화정 010-8438-3819 | 동운 018-611-7751 | | |
| 봉선 010-9474-0212 | 용봉 010-4601-2080 | | |
| 진월 010-2615-8374 | 두암 010-2684-6091 | | |
| ◆ 시 외 안내 | | | |
| 강진 010-4606-0660 | 영암 010-5655-2415 | | |
| 담양 010-3629-9016 | 완도 010-9578-5900 | | |
| 무안 010-5234-2313 | 장성 010-5287-7711 | | |
| 보성 061-853-9125 | 장흥 010-6234-6226 | | |
| 순천 010-2300-9083 | 진도 010-3081-5203 | | |
| 광양 010-5604-6981 | 함평 010-3625-3160 | | |
| 여수 010-6655-8503 | 화순 010-2077-6464 | | |
| 영광 010-3611-3081 | 곡성 010-3615-1088 | | |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